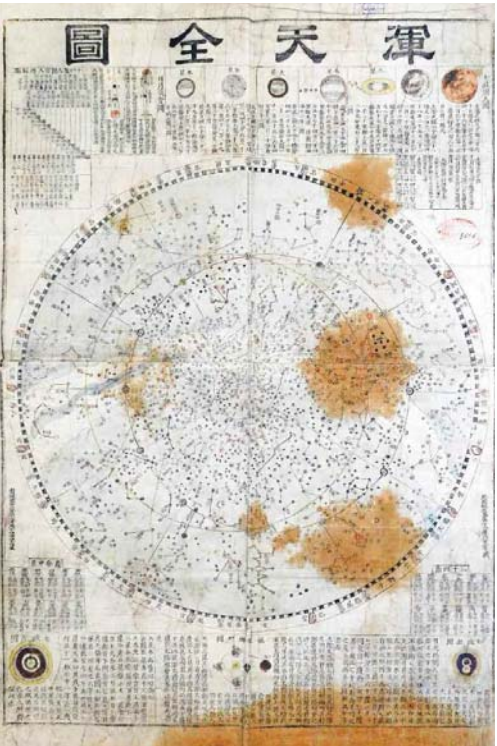




아름다운 조국강산
박연복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혼천전도》



우리 민족의 천문도인 《혼천전도》가 2023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천문도란 별자리 그림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혼천전도》는 18세기 우리 민족의 천문학발전모를 보여주는 천문도이다. 《혼천전도》는 《은하늘을 그린 천체 그림》이라는 의미로서 당시 밤하늘의 별들을 한장의 종이에 투영하여 옮겨놓았고 이와 함께 천문학현상들과 그에 대한 해설 및 천문상수들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농업생산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친다

공화국의 농업부문과 연관 단위들에서 농업생산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고 최량화된 농업지도체계와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들에 힘을 쏟고있다. 농업부문에서는 국가과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해당 과학기관의 연구력량을 동원하여 농장작업반들의 실태를 중앙에서 신속히 장악분석하여 과학적으로 대책하는데 중심을 두고 농업부문관리체계를 개발하고있다. 농업과학원 농업정보화연구소에서는 농업부문에서 영농계획을 작성하고 리용하며 농작물의 영양을 진단한 데 기초하여 과학적인 비료 주기의 시기와 량을 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농업부문을 과학적으로 지도하는 사업에 이바지하고있다. 또한 위성정보해석기술, 농작물생육모의기술을 리용한 밭, 보리수확도평가를 한데 기초하여 논벼와 강병이에상수확도를 정확히 판정하는 실천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산업성 평양이동통신 운영국에서는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농업과학기술들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본사기자

가을철의 전장관리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감기가 유행되는 계절에는 자주 비누로 손을 씻어야 비루스에 의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정상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자료에 의하면 체온이 1°C 내려가면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다고 한다. 가을과 겨울철에 감기환자

가 많아지는것은 기온과 체온의 변화에 많이 관계되기 때문이다. —영양분섭취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면역력을 높이는것은 음식물섭취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 편식하는 습관을 버리고 남새와 파일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입안위생을 잘 지켜야 한다. 입안위생을 잘 지키지 못하면 치주염이 생기고 당뇨병과 심장병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발을 깨끗하게 닦고 자주 입가심을 하는 등 입안위생을 잘 지키는것은 면역력을 높이고 튼튼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관리의 첫 걸음으로 된다.

본사기자

교육발전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화국의 교육부문 일군들과 교육자들이 나라의 교육을 하루빨리 선진교육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쏟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형의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대학에서는 수확부를 비롯하여 앞선 단위들을 내세우고 그 방법을 일반화하면서 이 사업을 단계별로 올려세우고있다.

뿐만아니라 빠른 기간안에 대학을 세계적수준의 연구형 대학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학과목교과서들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의 원칙에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집필하고있으며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을 일체화하기 위한 사업도 다같이 힘있게 내밀고있다. 대학에서는 축적된 경험과 방법에 기초하여 학과별로 인재유형을 바로 정하는 문제를 중심에 놓고 과정안도 새롭게 만들고있다. 평양교통운수대학에서도 교육에서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하면서도 학습환경을 보장해주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원격교육의 특성상 실력평가에서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제기되는것으로 하여 대학에

서는 인공지능기술, 가상현실기술 등 현대적인 기술들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원격교육을 보다 편리하게 하면서도 실력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게 구담모의체계를 개발하였다. 도입결과 실력평가에서의 정확도는 현저히 높아졌다고 한다. 얼마전 평성교원대학에서 진행된 제6차 전국교원양성부서 대학생기억경연은 많은 교육자들과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형직사범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교원양성부서대학들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경연에서는 지난 시기 세운 기록들을 돌파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번 경연은 대학생들속에서 경쟁열의를 불러일으키고 그 과정에 창조된 우수한 교육방법들을 널리 일반화하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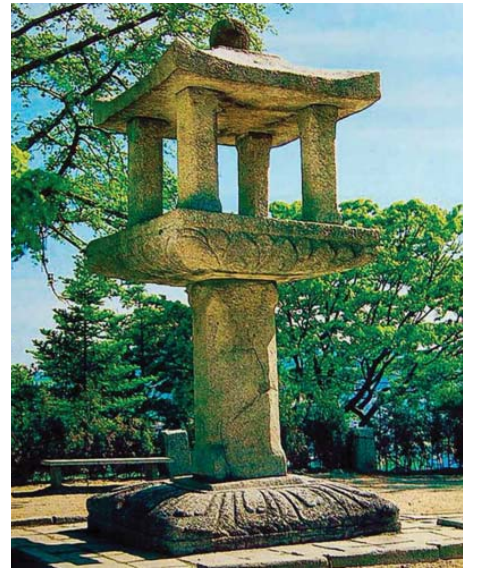


력사 유적

개국사들 등

개국사들은 개성시 개국사에 있던 돌로 만든 등이다. 개국사는 10세기에 세운 사찰로서 고려시기 손꼽히는 사찰의 하나로 이름이 높았으나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폐사되었다. 개국사들은 남아있는 돌등가운데서 비교적 큰것의 하나로서 그 높이는 3.72m이다. 돌등은 받침대, 기둥, 불집과 등머리로 이루어진 4각평면의 큰 돌등이다. 돌등은 화강석을 다듬어 만들었다. 4각평면으로 된 받침대 한변의 너비는 1.92m이며 그 윗면에는 얻어놓은 모양의 띠꼴을 새겼다. 개국사들은 간결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주는 고려초기 석조건축술을 잘 보여 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돌등은 화강석을 다듬어 만들었다. 4각평면으로 된 받침대 한변의 너비는 1.92m이며 그 윗면에는 얻어놓은 모양의 띠꼴을 새겼다. 개국사들은 간결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주는 고려초기 석조건축술을 잘 보여 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돌등은 화강석을 다듬어 만들었다.

국사들은 고려박물관 경내에 보존되어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겨를》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 다른데 돌릴수 있는 시간적여유를 나타내는 말이다. 《겨를》은 한가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 《저르롭다》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로서 한가한 시간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저르롭다》란 말에서 따와서 《겨를》은 《저르롭다》의 말뿌리 《저르》에 규정도 《르》이 붙어 명사화된것으로서 한가한 시간 즉 짬이란 뜻을 나타낸다. 《...롭다》는 《그렇게 되다》, 《그림만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본사기자

《겨를》

사화
기와 굽기 풍습 (3)
글 전철호, 그림 리성일

남들속에 빠질세라 성의껏 음식을 차려가지고 아버지의 묘에 이른 흥달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다. 아버지의 산소를 마주하고 보니 기와집이 떠오르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아버님! 불효자 흥달, 기와집을 잃을수 없소이다. 기와집을 잃어 복근이에게 물려주라고 하신 아버님의 당부 지켜드리지 못하고있소이다. 벌을 내려주소이다.》 흥달의 곁에 꿇어앉은 안해가 머리를 기우겨졌다. 제를 마치고 산을 내려서 안해는 흥달이에게 물었다. 《이보세요! 그러니 아직도 기와집을 꿈꾸고있다는거예요? 도대체 우리 힘으로 기와집을 지을수 있느냐 말이에요?》 흥달은 눈섭을 찌프리며 어성을 높였다. 《그럼 내가 잠시 물러섰더니 기와집을 췌버린줄 아나? 우리 부부가 다 쓰러지는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드려야 함은 마땅한 도리란 말이요. 난 복근이에게 기와집을 잃어놓는 이 초가집을 그대로 물려준다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거예요.》 안해는 웃으며 흥달을 위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하για 그렇지, 저런 한심한 초가집을 짓는다는게 여간 힘에 부치지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지요?》 《마누라! 궁냥이 있으면 털어놓게.》

흥달의 재촉에 주뿔거리던 안해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나서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엔 갈밭을 논으로 풀어 몇해 벼농사를 하면 지붕에 쇠를 기와집은 장만할것같은데.》 《뉘, 갈밭을 논으로 풀다구?》 잠시 고개를 숙인채 라산을 하던 흥달은 쓰거운 미소를 짓고말았다. 마누라의 그 말에 억이 막혔기때문이었다. 그래, 갈밭이 어떤 재산인가. 사실 흥달이네 갈자리가 유명해진것은 갈농사에 그 비결이 있었다. 아무리 손재간을 부려 골게 그리고 탐탁하게 여은 갈자리일지라도 갈대가 가늘고 채 여물지 않은것이라면 꺾어지기 쉽고 한번 꺾어지면 부스러져버리는 까닭에 그런 갈자리는 인차 못쓰게 되고 만다. 갈대를 굵고 잘 어문것으로 엮어야 들기름을 바른듯 갈자리가 연한 누른색의 윤기가 나서 방안이 환해지고 산뜻해보이는것은 물론 뜻자리 못지 않게 질겨 오래 쓸수 있다. 흥달이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재주는 갈자리를 탐탁하게 잘 엮는 솜씨와 함께 성천장에 펼쳐진 갈밭을 가꾸는 비결이었다. 아버지는 흥달이 어렸을 때부터 성천장에 데리고나가 이른봄에는 갈밭에 불을 놓아야 하고 웅덩이도 메우며 같이 살핀데는 더 심어도 주고 길은 또 어떻게 매야 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같은 반드시 상강 절기를 전후로 해서 배여들여야 한다는 요점을 일깨워 주었다. 아버지가 배워준대로 아글라글 갈밭을 가꾸고 잘 어문 철에 갈을 베어들이니 갈대가 하나같이 싹하고 단단하여 그것으로 엮은 갈자리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사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피땀흘려 마련해준 그 귀중한 갈밭을 뒤집어엎고 논으로 풀다니... 억지로 논으로 풀다가는 큰 화를 당한다. 장마철이면 무섭게 물이 범람하는 성천강인데 갈밭에 풀 논은 당장 죽렁이 되고말게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는 살아생전 갈밭에 눈을 얹힐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것이다. 흥달은 성이 나서 버럭 큰 소리를 치고싶었으나 자기를 다잡고 차근차근 일깨워 주었다. 안해는 크게 실망하여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안해를 보며 속이 좋지 않아하던 흥달은 문득



흥달은 성이 나서 버럭 큰 소리를 치고싶었으나 자기를 다잡고 차근차근 일깨워 주었다. 안해는 크게 실망하여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안해를 보며 속이 좋지 않아하던 흥달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다. 티끌모아 큰산을 이룬다고 갈자리를 더 많이 엮어 팔면서 허리띠를 조이면 그 돈으로 기와를 살수 있지 않을까. 한꺼번에 기와를 다 사들일수는 없는것이고 하루에 기와 몇장값을 마련해서 한 환해졌다. 흥달이 흥달이네는 풀전을 아껴가며 죽으로 끼니를 에웠고 밤에까지 갈자리를 엮었다. 며칠 지나 흥달이네는 이것도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풀죽으로 매식을 굶대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것도 한두해이지 강산이 변하도록 생고생을 어떻게 사서 할수 있단 말인가. 옛적에 어떤 사람이 생일날 하루 잘 차려먹으려고 재물을 아끼다가 그전에 굶어 죽었다는 소리가 있었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무슨 번통이 있어야지... 흥달은 여러날째 머리를 쥐여짜며 기와장을 장만할 궁남을 거듭했으나 실패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에라, 호랑이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아야 그림을 그린다는데 도대체 기와를 어떻게 굶는것인지 궁경이라도 하고 들어가. 흥달은 아침일찍 기와점촌을 찾아갔다. 아늑한 골안에 자리잡은 기와점촌에서는 장공인들이 기와를 빚고 굽는 모습이 보였다. 한켠에서는 산더미같이 파다놓은 흙을 이겨서는 기와틀에 넣어 기와를 빚어내고 다른 한켠에서는 구운 기와를 기와가마에서 꺼내느라 장공인들이 땀을 흘리며 돌아갔다. 장공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느라 흥달은 기와굽는 일이 워 별다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천강기슭에 혼한 갈매흙을 파다가 기와모양으로 빚어달린것 기와가마라고 하는 불야궁이에 넣었다가 꺼내면 그게 기와였다. 한나절동안 기와점촌을 오락가락하면서 기와굽는 일을 유심히 지켜보던 흥달은 불쑥 무릎을 쳤다. 까짓것 기와쟁이들처럼 집에서든 기와를 구워내면 안된다. 세기 매식을 풀이느라고 아궁에 불을 뿜 때 그안에 기와 몇장을 넣고 구우면 그게 바로 평평고 알맞고 등지러 붙는 격이 아닌가. 기와에서 갈매흙이 파다가 암기와와 수기와를 빚는 일밖에 품게 없겠는데...